

한국불교 일상의례의 명칭 문제

—用例와 認識을 중심으로—

이 성 운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강사

목 차

- I. 緒 言
- II. 名稱과 認識
 - 1. 禮敬儀禮
 - 2. 供養儀禮
- III. 結 語

투고일자 : 2012. 7. 25.

심사기간 : 2012. 7. 26 ~ 2012. 8. 1.

게재확정 : 2012. 8. 9.

국문 요약

이 논문은 한국불교의 일상의례를 지칭하는 명칭의 용례와 거기에 투영된 인식에 대한 문제를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명칭을 중심으로 고찰하는 것은 범주와 의미를 규정해 주기 때문이다. 일상 의례라고 하면 나날이 정진 하는 의례라고 할 수 있는데, 한국불교의 일상 의례 명칭으로는 조모송주, 예불, 예경, 불공, 권공 등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불교 일상 의례에 쓰이고 있는 주요 명칭의 변용과 인식 등을 고찰하였는데, 20세기 이전 문헌에는 일용작법이라거나 조모송주와 예경 등이 포괄된 채 쓰였다고 보이지만 최근에는 조모송주와 예불에 해당되는 명칭으로는 '예불'이, 불단을 비롯한 모든 단의 공양의례로는 '불공'이 그 대상을 변별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쓰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하여 본고에서는 그 같은 인식을 하게 된 여러 가지 연유에 대해 살펴보고 그 대상에 따라 ○○(대상)예경, ○○(대상)헌공 등으로 명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주제어

예불, 예경, 불공, 헌공, 일용작법, 석문의범, 통일법요집

I. 緒言

이름은 사물의 성격을 표현하는 가장 중요한 도구이다. 이름을 부여하는 행위를 명칭이라 하며, 부여된 이름은 명칭으로 불린다. 플라톤은 『대화록』에서 “모든 사물은 그 자체의 특성에서 유래된 정당한 명칭을 가지고 있으며, 협정이나 관습에 따라 부여된 명칭은 올바르지 않다”¹⁾고 하는데 이 글의 이론적 타당성을 뒷받침해 준다고 할 수 있다.

이 글은 한국불교 일상 의례에서 널리 쓰이는 주요 명칭의 용례와 한국불교 의례 수용자들은 그것들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문제는 무엇이며, 어떻게 재(再)명명되고, 활용되어야 하는지 등을 찾아보는 데 목적이 있다. 한국불교 일상의례의 명칭 용례와 각 명칭의 의미와 거기에 투영된 인식을 살펴보면, 명칭과 실제의 관계를 해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명칭의 외연과 내포가 해당 의례의 범주까지 변형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석문의범』²⁾과 『통일법요집』³⁾의 목록에 나타나 있는 한국불교 일상의례의 명칭을 살펴보면, 『석문의범』 목록에 ‘일상’이라는 제명이 보이지 않으나 상편의 예경·축원·송주편과 하편의 각청·시식편 등이 일상의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⁴⁾ 그런데 예경편에 제시된 대·소예참과 달리 공양의례인 삼보통칭에서

1) 권재일 외, 『언어학과 인문학』,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9[2001]. 2쪽에서 재인용.

2) 안진호, 『석문의범』상편, 前刊商會, 1935[2000].

3)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 『통일법요집』, 조계종출판사, 1998[2003].

4) 안진호(1935[2000]), 상편 3쪽.

는 ‘보결진언 다음에 ‘예참’을 행하라’고 괄호하고 있다.⁵⁾ 『통일법요집』에는 ‘도량석, 종송, 예경·예불, 불공, 천도재, 시식·영반’이 일상 의례라고 제시하고 있다.⁶⁾

일상 예경 의례를 보면, 『석문의범』의 ‘예경편’에는 대웅전을 비롯하여 15개의 전(殿) 또는 단(壇)에 대한 예경문이 제시되어 있고, 『신편증주 석문의범』(1982)에는 대웅전 예경편에 ‘칠정례’와 ‘백팔대참회문’이 추가되어 있다.⁷⁾ 이에 비해 『통일법요집』(1998[2003])에는 『석문의범』 소재 대웅전 예경편에 있던 예경은 향수해례와 사성례만 존치되어 있다. 또 ‘상단칠정례’에 ‘상단예불’과 ‘신중단’을 하위로 두고 있고, ‘대웅전 예경·각단예불’이라고 하여 병렬로 제시되어 있는데, 『석문의범』 대웅전 예경편에 시설된 대·소예참은 찾아볼 수 없고, 삼보통청의 소항목으로 ‘예참’이 나타날 뿐이다. 이것은 한국불교의 의례 수용자들이 ‘예불’과 ‘예참’에 대해 동이(同異)의 이중적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 한국불교의 일상 의례로 불공, 권공 또는 퇴공이라는 공양 의례의 명칭이 쓰이고 있다. ‘불공’이 불에 공양한다는 의미일진데, 불의 하위격인 신중이나 보살 제위에게도 칠성불공 용왕불공 조왕불공이라거나⁸⁾ 신중불공 관음불공이라고⁹⁾ 명명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개인이나 단위 사찰 차원이 아닌, 통합적 차원의 첫 편찬물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한불교진흥원의 『통일법요집』(1988[1993])에서는 공양의례의 명칭으로 헌공을 채택하고 있다.¹⁰⁾ 하지만 이 명명은 제대로 전승되지 못했다고 보인다.

5) 안진호(1935[2000]), 하편 6쪽.

6)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1998[2003]), 18~22쪽.

7) 안진호 편, 한정섭 주해, 『신편증주 석문의범』, 법륜사, 1982, 108~214쪽.

8) 李奉洙, 『常用佛教儀範』, 寶蓮閣, 1977, 10~11쪽 차례.

9) 이화옥, 『불교의식요집』, 대구 삼영불교출판사, 1995, 목차.

이후 대한불교조계종의 『통일법요집』(1998[2003])에는 ‘불공’의 하위 의식으로 16종 내지 14종의 청(請)으로 편제돼 있다.¹¹⁾ 또 중단의 권공과 퇴공 개념이 분명하게 변별돼 쓰이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같은 현상들은 예경과 예불, 예참, 불공과 권공에 대한 인식의 변화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한국불교 일상의례의 명칭인 예불과 예참, 불공과 권공 등의 명칭에 대한 용례와 인식에 대해 논의해 보기로 한다.

II. 名稱과 認識

1. 禮敬 儀禮

가. 禮佛

그동안 예불에 대해서는 적지 않게 논의되었지만¹²⁾ 논의가 완결되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왜냐하면 예불에 대한 그간의 대

-
- 10) 재단법인 대한불교조계종 통일법요집 편찬위원회, 『통일법요집』, 재단법인 대한불교조계종 출판부, 1988[1993], 차례.
- 11)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1998[2003]), 『통일법요집』 초판과 재판의 편제상 차이는 약례를 청의 하위로 처리한 정도에 불과하다.
- 12) 正覺, 『예불이란 무엇인가』, 운주사, 1993[2004]; 宋賢珠, 『現代韓國佛教 禮佛의 성격에 관한 研究』,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99; 전해주, 『韓國佛教 儀式文에 보이는 華嚴信仰과 思想—대웅전 예경문을 중심으로』, 『종교연구』 16, 1998; 김종명, 『현대 한국의 승려 예불: 구조와 의미』, 『불교학연구』 14, 불교학연구회, 2006; 김종명, 『한국 일상에불의 역사적 변용』, 『불교학연구』 18, 불교학연구회, 2007; 신규탁, 『조계종 현행 예불문 고찰』, 『동아시아불교의례문화연구소 출범 및 기념세미나』, 2011(『淨土學研究』 16, 2011, 수록); 이성운, 『상주예경과 소청예불』, 『동아시아불교의례문화연구소 출범 및 기념세미나』, 2011(『淨土學研究』 16, 2011, 수록).

체적인 논의는 첫째 예불을 지나치게 확장하거나 축소하여 범주가 모호하고,¹³⁾ 둘째 예불이 일상에서 행해지는 수행이라는 인식과 관점에서가 아니라 피상적이며 평면적으로 분석한 나머지 '구성원들의 정체성 통합에도 기여하지 못하며, 불교의 핵심 사상을 반영하지도 않으며, 예불을 위한 승려들의 시공간적 구성은 위계질서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 평등주의와도 어긋나며, 불교의 핵심사상을 담고 있지 못한 예불 자체가 수행의 목표가 될 수는 없는 것이라'는 견해¹⁴⁾ 등이 상존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예불의 정의와 범주, 그리고 그 의미와 현행 한국불교의 조석예불에 대한 견해들이 정당한가 등을 살펴보자.

'예불이란 모든 사찰에서 날마다 조석으로 집전되는 의식으로서, 불보살에게 예를 올리는 일체의 행위 동작을 총칭하는 개념'¹⁵⁾부터 살펴보자. 한국불교의 여러 의문 가운데 '예불'이라는 항목이 등장하는 것은 『일용작법』(1869)의 '모송절차'에 이어지는 '예불절차'라고 할 수 있다.¹⁶⁾ 이전의 의문이라고 할 수 있는 '청문', '요집', '작법' 등에는 '예불절차'라는 소목(小目)이 보이지 않는다. 『일용작법』 '예불절차'에는 상단의 3종의 예문

13) 正覺(1993[2004], 27쪽. 이 예불의 분과는 예경과 예불의 범주를 종래 『석문의법』이나 『통일법요집』이 채택하고 있는 예경의 하위로 예불을 설정한과 달리 '예불'이라는 개념을 상위에 두고 개념의 도치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14) 김종명(2006), 145~152쪽. 이 논문에서 "현행 예불이 가지는 기능적, 사상적, 실천적 의미는 크지 않으며, 예불문의 내용도 불교의 핵심사상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153쪽)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예불 개념의 지나친 확장과 예불의 이면적 의미를 지나치게 현학적으로 분석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15) 김종명(2006), 앞의 논문, 130쪽.

16) 秋淡井幸, 『日用作法』, (도솔암, 1869, 『한의총』 3, 530쪽). 이 『일용작법』은 '승가일용작법', '불가일용작법' 등으로 명명되지만 논자는 『日用作法』으로 명명되어야 하며 (이성운, 『韓國佛敎 儀禮體系 研究-施食·供養 儀禮를 중심으로-』, 東國大學校 博士學位論文, 2012, 10쪽, 주 12), 간기도 '1882'년이 아닌, 판각년도 1869년을 따라야 한다고 보고 있다.

과17) 중단의 예경문을 제시하고 있다. 예불절차를 봉행할 때는 예불계송으로 시작하지만, 이어지는 소예참에서는 다게를 시설해 놓고 있다. ‘예불절차’ 앞에서는 저녁 송주가 시설되었고, 뒤에는 준제행법과 ‘장엄염불’이 ‘정토업’으로 시설돼 있다. 『일용작법』의 ‘예불절차’에 중단(中壇)의 104위 신중을 3위로 축약한 금강보살명왕중과 범석사왕제천중과 공계산하영기중이 포함되어 있지만 불타야중 달마야중 승가야중의 삼위 삼보와 <소예참>에서 세분해 지심경례하고 있는 삼보에 대한 예경을 예불로 인식하고 있다. 『일용작법』의 예불은 삼보를 불과 법과 승으로 구분하지 않고 불로 통칭되고 있으며, 이 편제는 예불과 송주를 구분해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예이다.

하지만 『석문의범』(1935)에 이르면 사정이 달라진다. 같은 편자의 『불자필람』(1931)에서도 보이지 않던 ‘예경편’이라는 소목이 등장한다.¹⁸⁾ 『불자필람』은 ‘향수해’, ‘사성례’, ‘소예참’ 등 8개의 예경 예참문을 <대웅전 예경편>으로 정리하고, 신중단 예경은 각전 예불편 뒤에 39위 신중이 축약된 의문을 존치하고 뒤이어 『일용작법』의 중단 예불 의문을 ‘우(又)’라고 하며 시설해 놓았다.¹⁹⁾ 『석문의범』에는 ‘예불’의 상위개념으로 ‘예경’이 쓰이고 있고, 이는 『통일법요집』(1998[2003])에도 이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²⁰⁾ 어법구조상 예경은 예경의 대상이 밝혀져

17) 한보광 스님은 『일용작법』의 ‘예불절차’를 소개하면서 3종으로 보지 않고 통 예불문으로 이해하고 있다. 이는 영인본의 ‘又’를 감안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淨土禮佛文에 관한 研究』, 『淨土學研究』第六集, 한국정토학회, 2003), 134~135쪽). 하지만 신규택 교수는 “<又>의 의미를 번역하면 <또는>이 될 것이다. <또 하시오>라는 뜻은 아닌 듯하다”고 하여 3종의 예불문임을 분명하게 구별하고 있다(신규택, 『조계종 현행 예불문 고찰』, 『동아시아불교의례문화연구소 출범 및 기념세미나』, 2011, 10쪽 주 7, 『淨土學研究』 16에 재수록).

18) 안진호(1935[2000]), 상편 5쪽.

19) 안진호(1935[2000]), 상편 58~59쪽.

있지 않은 행위사이고, 예불은 보현행원의 10대원 중 그 첫째인 ‘예경제불(禮敬諸佛)’의 약칭이라고 본다면 예불은 갖춘 명제어가 될 수 있다. 예하는 행위를 받는 대상이 ‘불’일 때 ‘예불’이라고 하면 의미가 분명하여 상관이 없지만 그 대상이 불의 범주를 넘어서면 ‘예모(禮某)보살’, ‘예모성문’이라고²¹⁾ 명명되어야 의미가 분명해질 수 있다. 『일용작법』에서는 중단이 포함한 일체 삼보에 대한 예경의 명칭으로 예불이 쓰이고 있지만 『석문의범』의 편자는 ‘예불’을 문자 그대로 불(佛)께 예배할 때에만 쓰고 기타 불보살이나 신중들에 대해 행하는 경우를 통틀어 상위의 개념으로 ‘예경’을 설정하고 있다. 이는 예불의 개념을 문자대로 해석하여 사용하여 그 범주를 분명히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석문의범』에서와 같이 그 의미가 분명한 명명법과 달리 “나와 남, 나와 사물까지도 포함된 모든 존재자”를 예배의 대상으로²²⁾ 인식하면 예불의 의미는 달라지고 그 범주는 확장되게 된다. 이 같은 인식은 ‘절하는 이와 절 받는 이의 본 성품은 본래 공하여 고요하다(能禮所禮性空寂)’고 오체투지로 절을 하며 마음으로 생각하는 그 의미를 잘 드러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관상 이전에 행하는 예배의 대상은 불과 보살과 존자를 분명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예불은 예경의 한 종류 예식이므로 광의의 예경을 예불로 설정할 필요가 없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예경과 예불에 대한 『석문의범』이나 『통일법요집』의 이해는 보편적이라고 하겠지만 현대에도 ‘중단예불’이라는

20)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1998[2003]), 55쪽.

21) 弘贊, 『禮佛儀式』, X74, 634~636쪽. ‘普禮三寶, 禮文殊菩薩, 禮迦葉尊者’라는 용례를 만날 수 있다.

22) 정각, 『예불이란 무엇인가』, 운주사, 1993[2004], 16쪽.

표현이 상존하고 있다.²³⁾

예경과 예불 개념의 단서를 제공하고 있는 『석문의범』과 『불자필람』은 의미 있는 또 다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석문의범』의 신중단(神衆壇) 예경문에 시설된 39위와 104의 축약 3정례 예문이, 『석문의범』과 달리, 『불자필람』에는 〈향수해〉와 〈사성례〉 이후에는 39위의 〈신중단예식(神衆壇禮式)〉이, 〈소예참〉 이후에는 『일용작법』의 중단 예불과 같은 104위 신중의 축약 중단(中壇) 예문이 구별돼 시설되었다.²⁴⁾

그러므로 예불은 법당 내에 모셔진 불에게 예배하는 협의의 예경에²⁵⁾ 한정할 필요가 있다. 도량석이나 조석 송주의 정진을 광의의 예불로 표현하면 예불의 의미를 온전히 드러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협의의 예불의 정의를 인정한다면 예불은 승려 예불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승려가 아닌 일반 신도들이 사찰 안에 머물 수는 있겠지만 의례의 집전 주체라고 하기 어렵다. 예불은 스님들의 수행일과이므로 승려 예불이라고 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승려 예불은 비 승려(재가신자)의 예불이 별도로 존재할 때 택할 수 있는 어법이기 때문이다.

예불의 다른 표현이라고 이해하는 ‘분수(焚修)’²⁶⁾ 의식이 예

23) 심상현, 『불교의식각론』Ⅲ, 한국불교출판부, 2001, 375쪽.

24) 蓮邦 崔就虛 震湖 安錫淵 共編, 『佛子必覽』, 蓮邦舍, 昭和六年, 1~16쪽. 『불자필람』은 4년 뒤 유사한 형태의 『석문의범』으로 다시 발행되면서 나란히 제시되어 그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지만 39위의 신중단과 104위의 신중단 예식은 차이가 있었음이 전해졌다고 보인다. 가령 39위의 신중은 별도의 별단이지만 104위의 상단의 불보살과 중단의 성현등증은 후불이나 당내에 모셔져 있음을 상정하여 편제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25) 宋賢珠, 『現代韓國佛敎 禮佛의 性格에 관한 研究』,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99, 32쪽; 정각(1993[2004]), 27쪽.

26) 김종명(2007)은 “범수가 예불의 명칭으로 쓰인 것(정각 2007, 4쪽)은 최제안(?~1046)이 이 사찰을 중수(『한불전』 6, 338a16)한 것으로 보아 10~11세기경이었다”고 하면서 ‘분수’(이 원고에는 ‘梵修로 오기)를 예불이라는 견해를 견지하고 있

불을 지칭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계초심학인문』의 다음 구절은 분수를 예불로 이해할 단초를 제공되고 있다.

赴焚修²⁷⁾ 須早暮勤行 自噴懈怠

분수에 이르러 아침저녁 부지런히 행하되 자신의 게으름
을 꾸짖으며,

이 ‘분수(焚修)’를 대개의 〈계초심학인문〉의 역자들도 ‘예불’로 또는 ‘예불하고 수행해’라고 하여 ‘예’와 ‘수’로 나누어 번역하고 있다.²⁸⁾

『삼국유사』 〈천룡사〉조의 ‘분수’라는 표현을 참고하여 예불의 명칭으로 ‘분수’가 쓰이기 시작한 것이 10~11세기라는 앞의 견해가 적합한지를 보자. ‘분수’의 용례를 보면, 『계초심학인문』 외에도 『准提焚修悉地懺悔玄文』(X74, 1482)과 같이 참회문의 제목에도 나타나며, 다음 예와 같이 편지[書]나 소(疏), 『율원사규』 등에 보이고 있다.

然後, 滯魄淪魂, 冤家噴主, 共賴焚修之力, 僉歸解脫之門.²⁹⁾

그런 뒤 침흔체백과 원가책주가 함께 분수지력에 힘입어
다 해탈의 문으로 돌아가고

伏惟 祐世僧統, 法候萬福, 遙想焚修.³⁰⁾

다.(160쪽 주 56)

27) 『계초심학인문』, 『한불전』4, 738b쪽.

28) 번역 순서: 김호성, “예불을 함에 있어서는, 아침 저녁으로 부지런히 행하고”, 『계초심학인문』, 민족사, 1993, 96쪽; 심재열, “예불할 적에는 아침 저녁으로 부지런히 행하되”, 『해설 초발심자경문』, 보성문화사, 1998, 102쪽; 일휴, “예불하고 수행해 나아가되 아침·저녁으로 부지런히 행하여”, 『초발심자경문』, 정우서적, 15쪽.

29) 『大覺國師文集-代宣王諸宗教藏彫印疏』, (『한불전』4), 553c쪽.

30) 『大覺國師文集-高昌國幻釋尸羅嚙底書』, (『한불전』4), 581c쪽.

있드려 우세 승통의 범후가 만복하시기를 바라며 멀리서
분수를 생각하오며,

凡遇焚修祈禱，須虔誠齋沐，如法鋪陳，花果新鮮，香燭殊勝，
殿宇時時洒掃³¹⁾

무릇 분수기도를 만나게 되면 삼가 정성으로 목욕재제하
고, 법답게 꽃과 과일은 신선하고 향과 축은 좋은 것으로 펼
쳐 진설하고, 전각과 당우는 때때로 물 뿌려 청소하며,

『准提焚修悉地懺悔玄文』의 제명이나 『대각국사문집』의 ‘분수
지력’과 ‘분수’, 『律苑事規』의 ‘분수기도’를 보면 ‘분수’는 단순한
일상의 예불이라고 하기보다는 ‘준제기도’와 같은 특별히 설행
하는 기도행법이라고 유추할 수 있다. 위 문헌의 출현 시기나 『
삼국유사』 〈천룡사〉조 기사로 볼 때 ‘분수’라는 말이 쓰이기
시작한 것은 10~11세기라고 추정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것
으로 보이지만 이를 ‘예불’이라고 한정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고
보인다.

‘분수’의 의미를 추정할 수 있는 의례로는 『범음산보집』³²⁾과
『오종범음집』³³⁾ 등에서 〈분수작법〉이 있는데, 『범음산보집』
(1723)에는 ‘昏’과 ‘晨’이라는 때를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조석예불이 연상된다. 또 『작법귀감』(1826) 〈분수작법〉에는
‘갓춘 새벽 정진 의례’가 제시되어 있다. 순서를 보면, ①‘나무소
재회상불보살’을 세 번 설하며 절을 한다. ②분향하며 예배를
하는데, 찬향·연향·삼업게송을 염송하며 불보에 귀의 예배하
고; 찬등게송을 염송하고 범보에 귀의 예배하고; 찬화게송을 염

31) 省悟 編述, 『律苑事規』(元代 1325), (X 60), 113a쪽.

32) 智還 編, 『天地冥陽水陸齋儀梵音刪補集』(1723), (『한의학』 3), 5~7쪽.

33) 智禪 撰, 『五種梵音集』(1652/1661), (『한불전』 12), 179下~180上쪽. 이 책의 간기는
1661년이지만 찬자의 서문에는 1652년으로 명기되어 있다.

송하며 승보에 귀의 예배하는 삼귀의 예불을 한다. ③좌불게송과 예불찬송을 하고 칠불 혹은 53불에게 예배한다. ④행원품을 염송한다. ⑤‘나무원통회상불보살’ 하고 일어나 법당을 돈다. ⑥천수주 3편과 소재주 21편을 한 후 십악화청을 행한다. ⑦십상찬을 하고 관세음보살 정근을 하고 탄백을 하고 고아예경 3배를 하고 축원을 한다.³⁴⁾ 이 작법을 보면 예배하며 참회를 하는 정진 의례임을 보여 준다.

그런데 ‘십악참회’를 ‘분수작법’ 중 ‘대분수작법’에서는 ‘십악화청’이라 하고 있다. 이를 보면, 아침저녁 때 행하는 화청의식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화청이라는 명칭으로 볼 때, ‘살생중죄금일참회’ 하고 화음으로 (관세음보살님) 재창하며 청원하지 않았을까 생각된다.³⁵⁾ 흔히 ‘화청’ 하면 회심곡 또는 ‘지심결청(至心乞請)’ 하는 가사(歌詞)들을 떠올린다. 예수재 화청을 보면, 범주가 먼저 ‘지장보살, 모씨 보체 애민부호(某氏保體 哀愍覆護)’ 하면, 대중은 화음으로 ‘현증복수 당생정찰(現增福壽 當生淨刹)’ 하라고³⁶⁾ 되어 있다. 『범음산보집』(1723)에는 ‘십악화청’ 열 조목 중 마지막의 세 조목 탐진치를 ‘삼독중죄금일참회’로 통합하고 바로 이어 ‘차 관음정근’이라는 항목을 두고 있다. 내용은 ‘원통교주(圓通教主) 관음보살, 발고여락(拔苦與樂) 관음보살, 삼십이응(三十二應) 관음보살, 십사무의(十無畏) 관음보살, 사부사의(四不思議) 관음보살, 문성구고(聞聲求苦) 관음보살, 광대

34) 巨旋集, 『작법귀감』, (『한불전』 10), 580~590쪽.

35) 智還編, 『天地冥陽水陸齋儀梵音刪補集』(『한의총』 3), 107下; 智還編, 『天地冥陽水陸齋儀梵音刪補集』(『한의총』 3), 6下. 똑같은 의식이라고 할 수 없지만 천수 10원 때 ‘나무대비관세음’ 칭명하고 이어 각 원을 하나씩 염송하는 법이나 장엄염불 때 ‘나무아미타불’을 후렴처럼 칭명하는 경우 등도 그 같은 행법의 한 모티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36) 大愚集述, 『預修十王生七齋儀纂要』(『한의총』 2), 427. 84上.

영통(廣大靈通) 관음보살, 천수천안(千手千眼) 관음보살'의 여덟 분 다른 이름의 관음보살을 정근하고 있다.³⁷⁾ 이에 비해 『작법귀감』 '분수작법'에는 '십악화청' '십상찬'을 연이어 편찬하고 있는데,³⁸⁾ '차 관음정근'을 '십상찬'이라고 하는 것만 다르다. 아마 십악화청에 관음보살 명호를 배대하였다고 보인다.³⁹⁾

또 화청의 원형적인 모습은, 하루 세 때 하는 염불작법 의례인 『삼시계념의범』에도 나타난다. 이시(二時)불사 이후에 봉행되는 것으로 보이는 '미타예참의문' 편을 보면, 여래십대발원문 첫째 둘째 원을 하고 각각 절을 한 번 하고 '나무아미타불'을 칭명하고, 셋째부터 일곱째 원까지 각각 한 번 절을 하고, 여덟째부터 열째 원까지 각각 한 번 절을 하고 축원을 한다. 법사는 요령을 흔들고 염송과 찬탄을 하며 대중은, 부처님 명호 다섯 번을 화음으로 소리한다.⁴⁰⁾ 한 원, 한 원에 절하고 2원과 7원 뒤에는 '나무아미타불'을 하고 마지막에 축원을 하며 대중이 화음으로 칭명불호(佛號)하는 행법은 화청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할 수 있다.⁴¹⁾

이렇게 보면 이 십악참회, 십악화청은 각 죄업 참회를 발원하고 관세음보살을 칭명하여 청해 각 죄업 소멸을 축원하는 의례로 이해할 수 있다. 화청을 담고 있는 <분수작법>은 업장을 참회하고 선근을 늘이는 조석 정진 법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모든 의례를 행할 때 예불을 행하는 것은 지당한 일이지만 예불

37) 智還 編, 『天地冥陽水陸齋儀梵音刪補集』(『한 의총』 3, 1723), 7上.

38) 巨旋, 『作法龜鑑』(『한 의총』 3), 431下~432上.

39) 졸저, 『친수경, 의례로 읽다』, 정우서적, 2011, 20~201쪽

40) 中峯, 『三時繫念儀範』(X 74), 68b.

41) 『三時繫念儀範』 국내 본(月渚 道安 書, 『三時繫念儀範文』(『한 의총』 2), 560下)에는 "나무아미타불과 10대 발원 일일이 평상대로 한다"고 한 것으로 볼 때 누구나 익히 알고 있던 방식으로 이해된다.

에 초점이 주어졌다고 말하기 어렵다.

『공양문(供養文)』(1764, 도리사 간)⁴²⁾이나 『영산대회작법절차』(1634)의 〈분수작법시계운〉 아래에 있는 다음 협주는 〈분수작법〉의 의미를 설명해 주고 있다.

焚諸惡業 修諸善根⁴³⁾

여러 악업을 불사르고, 여러 선근을 닦는다.

또 〈분수작법〉의 삼업계송(삼업을 같이 닦고자 삼보께 예배하는데/ 오륜(체)을 땅에 던져 예배하며 오륜(체)을 관하고/ 육근이 움직이지 않고 육진을 소멸하며/ 팔식을 문득 잊고 팔덕이 원만해지네)은 〈분수작법〉의 의미를 선명하게 해준다. 또 협주는 〈분수작법〉이 거불 가지로 칭명되는 주불의 기능을 알려주고 있다고 하겠다.

소재주를 의우려면 ‘소재회상 불보살’, 금강경을 염송하려면 ‘반야회상 불보살’, 천수를 의우려면 ‘원통회상 불보살’을 칭명하고 개경계송을 하고 회향 바라를 울리고 축원하여 마친다.⁴⁴⁾

위 협주는 〈분수작법〉 때는 거불의 칭명은 당일 행하는 다라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 준다. 하지만 『작법귀감』에서는 〈행원품〉 염송을 제시하면서 거불은 ‘나무소재회상 불보살’을 칭명하고 있다. ‘분수(焚修)’ 작법에서 예불을 한다고 하여 ‘예불’이라고 하며 〈분수작법〉의 의미를 온전히 드러내기

42) 대한불교조계종 어산작법학교 교수사 법안 스님 소장본.

43) 『靈山大會作法節次』, (『한의총』 2), 138下쪽.

44) 『靈山大會作法節次』, (『한의총』 2), 138下쪽.

어렵다. 왜냐하면 어떤 정진 불사를 하더라도 삼귀의 등 예불을 하지 않는 경우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예불은 부처님께 올리는 예배로 예경의 한 부분이다. 불법승 삼보에 예배하는 것을 예불이라고 할 수 있지만, 삼보 외의 일체 성현들에게 행하는 넓은 의미의 예배는 ‘예경(禮敬)’에 담고 부처님께 올리는, 넓게는 삼보님께 올리는 예배를 ‘예불’이라고 한정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예경의 한 하위 개념으로 예불을 정의하고 있는 『석문의범』이나 『통일법요집』의 명명은 의미 있다고 할 수 있다.

나. 禮懺

예불이 부처님께 예를 올리는 것이라면, 예참은 예불을 하고 참회를 진행하는 의식이다. 그런데, 현행 한국불교에서는 예불과 예참을 구별해서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흔하다.⁴⁵⁾ 『통일법요집』(1998[2003]))의 목차에는 예참이라는 표현이 없다. 대·소예참이 대응전 예경 의식으로 채택되지 않은 탓일 것이다. 하지만 공양의식인 <삼보통청>에 등장하고 있다. 예참이 “예경의 형태와 참회의 행법이 하나로 어우러진 포괄적인 참회 방법”⁴⁶⁾이라는 문자적 정의에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면, ‘지심정례공양~석가모니불’과 같은 형태의 7정례 또는 3정례의 본문과 유원의 축원구로 형성된 현행 공양의식의 하위의식으로, 변공(變供)의 <사다라니> 다음에 시설된 ‘예참’은 적합하다고 하기 어렵다. ‘예참’의 실행 위치 또한 『석문의범』의 공양의식인 <제불통청>

45) 줄고, 『韓國佛敎 儀禮體系 研究-施食·供養儀禮를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2, 181쪽.

46) 정각, 「참회, 예참의 의미와 행법」, 『불광』 285호, 불광회, 1998, 31쪽.

에는 보회향진언, 원성취진언, 보결진언 다음에 ‘예참’을 행하라는 팔호 지문을 만날 수 있다.⁴⁷⁾

예참은 ‘예불참회’의 약칭이거나 ‘참법’, ‘참의’ 등의 참회의식을 지칭하는 명칭일 수 있을 것인데, 현재 한국불교의 일상 정진 또는 공양에서 쓰이는 예참의 명칭에 대해 좀 더 살펴보자. 참회가 없는 종교는 없을 것이다. 예배하고 참회하는 행법이라고 할 수 있는 ‘예참’은 ‘참의(懺儀)’와 같은 행법에 연유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예참의 일반적인 순서는 행법에 따라 조금씩 차이를 보이지만 대체적인 차례는 크게 다르지 않다.⁴⁸⁾ 참법의 순수를 보면, 대체로 법회 도량에 모실 분을 청하여 예배를 끝낸 다음 ‘참회’를 하고 권청(勸請)·수희(隨喜)·회향(迴向)·발원(發願)을 하고 있다. 『천수안대비심주행법』의 경우는 사홍서원으로 발원하지 않고 천수주를 외우기 전에 하는 10원과 6향의 16원을 발원하고 있다.⁴⁹⁾ ‘참회 후 발원’이 일반적 등식으로 정형화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참의들의 참회발원이 비록 길게 편집돼 있지만 하위단락으로 처리돼 있다.⁵⁰⁾

예참의식이 제목에 등장하는 국내 의문으로 『현행법회예참의

47) 『석문의법』하편, 6쪽. 심상현은 이 지시문에 의거 보결진언 다음에 예참을 시설하고 해설하고 있다(『불교의식각론V』, 2001, 34쪽; 『영산재 성립과 작법의례에 관한 연구』, 위덕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2011, 314~316쪽).

48) 가령, 『法華三昧懺儀』는 ①嚴淨道場, ②淨身, ③三業供養, ④奉請三寶, ⑤讚嘆三寶, ⑥禮佛, ⑦懺悔六根·勸請·隨喜·迴向·發願, ⑧行道, ⑨誦經方法, ⑩坐禪實相正觀으로(T 46, 950上~954中쪽), 『往生淨土懺儀』는 ①도량을 엄정하고, ②도량에 들어가 행하는 방법을 설하고, ③바르게 마음을 닦고, ④향을 사르고 꽃을 홀어 공양하고, ⑤청하여 예경하고, ⑥찬탄하고, ⑦예불하고, ⑧참회와 발원을 하고, ⑨법좌를 들고 경전을 독송하고, ⑩좌선을 한다.(X 61, 660上~664下쪽)

49) 『천수안대비심주행법』의 10원 발원을, “사홍서원 등의 발원을 행하라”라고 이해하는 경우도 있지만(정각, 앞의 책, 275), 천수 10원을 사홍서원에 배대해 설명하고 있을 뿐이다.

50) 졸저, 앞의 책, 280~281쪽.

식』(1709)이 있는데, 예불참회 편에 석가모니불, 동방 약사여래불, 서방 아미타불, 당래 하생 미륵존불 칭명 이후 12불명의 예경이 보인다. 이후에 문수, 보현, 관세음, 대세지, 일체칭정대회 제보살의 칭명이 함께 시설되었다.⁵¹⁾ 이 예경문 이후에 참회계와 연비를 하고 이후에 이참의 ‘백겁적집죄~’의 이참계송과 아미타불 본심미묘진언 염송으로 진행된다. ‘현행법회예참의식’이라는 명칭으로 볼 때, 예경 칭명 ‘가치참회’가 성행되었을 것으로 보인다.⁵²⁾

『현행법회예참의식』 이전의 『오종범음집』이나 『범음산보집』 소재 〈선문조사예참〉은 한국의 선문 조사뿐만 아니라 한국불교의 여러 큰 조사들에게 예배를 하고 찬탄한 후 참회·권청·수회·회향·발원하는 전형적인 예참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⁵³⁾ 일상적인 정진이라고 하기보다는 수록대재 기간 중에 조사단을 청해 예배하고 행하는 행법이므로 일상의례라고 정의하기 어렵다. 하지만 예참의 갖춘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 하겠다.

『석문의범』에는 『현행법회예참의식』처럼 예배 후 참회의 전형적인 예참의 방식 형태를 갖추진 것은 『관음예문례』에 불과하므로 엄밀한 의미에서는 예경의문이라고 할 수 없다.⁵⁴⁾ 현행 한국불교의 예참의문인 〈예불대참회문(禮佛大懺悔文)〉⁵⁵⁾은

51) 明眼集, 『現行法會禮懺儀式』(『한불전 9』, 202下~203上.

52) 줄저, 앞의 책, 196쪽.

53) 智禪撰, 『五種梵音集』(1652/1661), 『한불전』 12, 168下~169上; 『범음산보집』, 『한불전』 11, 491~493. “中禮二晝夜 兼 禮懺”, “志磐三晝夜 兼 禮懺”이라고 하여 ‘중례’(수륙재찬요)나 ‘지반문’으로 봉행할 때는 혹은 2일째 3일째 조사예참을 행한다고 하고 있다.

54) 정각, 「참회, 예참의 의미와 행법」, 『불광』 285호, 불광회, 1998, 32쪽.

55) 이 〈예불대참회문〉은 『禪門口誦』에 의거하고 있지만 예경의 절을 할 때 ‘나무’라고 하는 『선문일송』과 달리 ‘지심귀명례’라는 행위동사를 채택하고 있다. ‘나무’라

108배를 하며 참회하는 순수한 예불 참회문이라고 할 수 있지만,⁵⁶⁾ 그 원전이라고 할 수 있는 <예불참회문>은 큰 절을 하지 않는다. “중국의 옛 사람들은 참회과문으로 108례를 정했지만, 실제로 개인의 여법한 예송을 제외하고, 총림에서는 흔히 무릎을 꿇고 송하지 예배하지는 않았다”⁵⁷⁾는 것이다.

국내 의례서적에서는, ‘조석’과 같은 <예불참회문>의 설행 시기를 찾기 어려우나 『禪門日誦』이나 중국의 『佛門必備課誦本』 등에는 저녁 송주 의식으로 ‘몽산시식’ 이전에 편입돼 있다.⁵⁸⁾ 이는 예불참회문의 역할에 대한 의미를 제공해 준다고 보이며, 아침송주의 <이산선사발원문>을 예불발원문으로 과송하고 있는 것과 대비된다.⁵⁹⁾

그렇다면 왜 ‘예불참회’의 순수한 의미를 담고 있는 ‘예참’이 한국불교에서는 ‘예참’이라는 소제목을 안고 공양의례의 공양예

고 할 때는 칭명 반배 예경을 하지만 ‘지심귀명례’ 하면 계수예배를 해야 하는 차이가 있다고 하겠다.

- 56) 이 참회문은 중국불교의 저녁과송 예참발원문인데 국내에 도입되어 108예배하는 참회문으로 정착되었다. 정영식은 「아시아 근대불교의례와 『선문일송(禪門日誦)』의 유통」(『韓國思想과 文化』 52, 한국사상문화학회, 2010, pp. 187~212)에서 『선문일송』과 ‘예불대참회문’이 성철 스님에 의해 국내에 유통·보급되었다고 하고 있다. 줄고(2012), 63쪽 주 108.
- 57) 中國佛教協會編, 課誦, 『中國佛教』第二輯, 知識出版社, 1982[1989], 357~358쪽; 줄고(2012), 183~184쪽. 당 불공 역의 『삼십오불명예참문』 권말에는 설명을 덧붙이고 있는데, ‘이 35불의 명호와 참회법은 오천축국에서 수행하는 대승인들이 항상 육시로 예참하는 것을 빠뜨리지 않았다’라고 하고 있다. 예참의 일법은 옛날부터 인도 대승인의 일상적인 과제였음을 알 수 있다.
- 58) 『禪門日誦』, 上海佛學書局, 63쪽; 陳文富 編輯, 『佛門必備課誦本』, 瑞成書局, 中華民國 95年, 52쪽.
- 59) 『禪門日誦』의 <暮時課誦>은 ‘불설아미타경, 예불참회문, 몽산시식의, 정토문·서방발원문·경책계’가 시설되었고; <朝時課誦>은 ‘능엄주, 천수주, 여의륜주, 소재길상주·공덕보산신주, 불설준제주·성무량수결정광명왕다라니, 약사관정진언, 관음영감진언·칠불멸죄진언, 왕생정토신주·선천녀주, 반야심경, 보희항기불게·찬불게·예화엄문, 예불발원문(이산연선사작), 삼귀의’이다.

문에 편입되게 되었을까. 이를 단순히 ‘〈소예참례〉나 〈대예참례〉는 대법회 때 공양의식의 일환으로 봉행’⁶⁰⁾되었다고 하는 것만으로 설명이 끝날 수 있을까. 『법화삼매참의』와 같은 참법에서도 공양은 진행되며 향화공양으로 관상공양한다. 그런데 『석문의범』 소재 대웅전 예경문 가운데 ‘예참’이라는 소목을 달고 있는 예문 가운데 ‘지심정례공양’이라고 하여 ‘공양’이라는 행위동사가 쓰이고 있는 의문은 〈대예참문〉에 불과하다. 『석문의범』 가운데 예참의 형태를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관음예문례〉만 하더라도 행위동사는 ‘지심귀명례’이다. ‘공양’이라는 행위동사를 기준으로 보면 〈대예참례〉는 예경의문이라고 하기보다 공양의문이라고 설명하는 것이 나올 것이다. 사지마지 때만 공양을 올리는 공양의문과 조석으로 올리는 예경의문과의 차이를 인정한다면 ‘예참례’라는 이름을 달고 있지만 〈대·소예참례〉의 용례는 다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예경편’에 공양문인 ‘대예참례’를 시설하고 있는 『석문의범』의 찬자는 예참에 광의의 ‘공양’ 의미가 담겨 있음을 유의하여 별도의 사지마지 공양의례를 설정하지 않는 대신 〈대예참례〉를 예경편에 편제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다. 그렇지만 〈제불통청〉의 경우 ‘예참’은 보컬진언 다음에 편제하고 있지만 『통일법요집』이나 현행의 주요 의례서적들은 공양의식을 행할 곳에 ‘예참’이라는 소목을 달고 ‘지심정례공양~야중’의 구문으로 공양을 행하고 있다. 이는 〈대예참례〉에서 쓰였던 행위동사가 차용된 것으로 보인다.

〈대예참례〉와 같이 ‘지심정례공양’이라는 행위동사를 채택하고 있는 의문으로는 〈화엄대예문〉이 있다.⁶¹⁾ 하지만 〈화엄대

60) 月雲, 『日用儀式雜記』, 중앙승가대학출판국, 1991, 34쪽; 한보광(2003), 130쪽.

61) 박세민 편, 『한국불교의례자료총서』 4, 1993, 687~716쪽

예문)과 유사한 <화엄예경문>은 제목에서 볼 수 있듯이 예경문이라 행위동사가 예경의 의미를 안고 있는 ‘나무’로 나타나고 있다.⁶²⁾ <대예참례>나 <화엄대예문>에 행위동사에 ‘공양’이 나타나지만 <소예참례>를 보면 ‘예참’이 공양의문으로 쓰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하겠다.

결국 예참은 ‘예불하고 참회하는 의문’이라는 데는 의문의 여지가 없을 것이지만 예경하는 의식이 참회하는 의식이 아니라고는 할 수 없다는 점에서는 예불과 예참이 다르다고 정의하기는 어렵다. 왜인가. 예불은 부처님의 명호를 칭하고(口: 칭명) 부처님의 덕상(德相)을 생각하며(意: 관상) 몸으로 예배를 올리는(身: 예배) 삼업공양으로, 예참의 주요한 행법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음은 몸과 입을 따라 일심으로 정례를 하며, 입으로 ‘一心敬禮十方常住佛·法·僧’이라고 칭하는 삼업공양은⁶³⁾ 밀교의 삼밀행법과 대비된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지극한 마음으로 삼보에 귀의하며 절을 하는 삼귀의를 하면 지옥고와 아귀고와 방생고가 소멸된다는 것이다.⁶⁴⁾

이렇게 본다면 한국불교의 일상 의례로서의 예불은 업장을 없애는 참회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예불에 대해 “절하기 등의 몸짓에 의해서만 동참”하므로 구성원들의 실질적인 통합에 기여하지 못하며 불교의 핵심 사상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은⁶⁵⁾ 불교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오는 견해라고 할 수 있다. 불교 예불이 자신의 업장을 없애고자

62) 『한국불교의례자료총서』 4, 671~684쪽.

63) 智顓 撰, 『法華三昧懺儀』, 대정장 46, 950b쪽.

64) “至心信禮佛陀耶兩足尊, 若歸依能陵消滅地獄苦; 至心信禮達摩耶離欲尊, 若歸依能陵消滅鐵鬼苦; 至心信禮僧伽耶衆中尊若歸依能陵消滅傍生苦.” 休靜 撰, 『雲水壇誦詞』, 『한의총』 2, 11~13쪽.

65) 김종명(2006), 147~149쪽.

하는 데 있으므로⁶⁶⁾, 예불은 예참의례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다. 또 예참이 업장을 녹이는 의례이므로 업장을 녹이지 않고는 불교에서 추구하는 수행을 완성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예불의 의미를 폄하하는 것은 올바른 인식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예불 또는 예경 이후에는 예참의 5회(悔)를 행해야 한다⁶⁷⁾고 하는 지적은 의미가 있다. 예경 이후 5회가 나타나는 국내 한국불교 의례로는 비록 〈선문조사예참〉에 불과하다고 해서 그 사상이 단절되었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예경 이후에 5회의 참회가 시설되지 않았다고 해서 예불을 예참이 아니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비록 예불의 칭명 참회가 수승한 참회법이긴 하지만 예경을 올린 후 다섯 가지로 참회를 하는 의식을 예참이라고 정의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러므로 공양의식의 지심정례공양 하며 봉행하는 공양예문은 외연을 따라서 ‘예공(禮供)’이라고 명명하여⁶⁸⁾ ‘예참’과 구별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2. 供養 儀禮

66) 月雲(1991), 27쪽.

67) 홍찬 편, 『禮佛儀式』, X 74, 635c쪽. 홍찬은 각 불보살과 존자 예경 이후 5회법과 보적경을 제시하면서 “위의 5회 계문이 생략된 것은 아마 애절하고 간절한 마음에서 다른 경을 펴지 아니 하였거나 문장이 다시 너무 길어 초학자들이 외우기 어려울까 두려워해서라고 추측하고 있다. 아니면 ‘공양의문’을 청문이라고 하듯이 예경 이후 참회가 당연하므로 각각 다른 예경만 제시하고 5회 약문은 동일하므로 그렇게 하였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68) 이 ‘예참’은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 연구본에서는 ‘예공’으로 교정하여 상위 기관인 의례위원회에 제출되었다.

국내에서 간행된 공양의례들을 일별해 보면, 각단[位]에 올리는 공양의 명칭에 대해 그간 삼보통칭 등 청사를 중심으로 명명하거나 ‘부처님께 공양한다’는 의미의 ‘불공(佛供)’을 붙여 상단불공, 신중불공, 지장불공 등으로 명명하거나 ‘공양을 권한다’는 ‘권공(勸供)’을 붙여 진언권공, 상단권공, 신중권공 등의 명칭을 부여하고 있다. 또 공양을 올린다는 ‘진공(進供)’을 붙여 상위진공, 중위진공 등으로 표기하고 있다. 근대에 와서는 성인께 공양 올린다는 ‘성공(聖供)’, 공양을 바친다는 ‘헌공(獻供)’ 등도 사용되고 있다.⁶⁹⁾ 불공, 권공, 진공, 헌공 등의 용례를 살펴보자.

가. 佛供

공양에 관한 어법은 능소(能所)와 소능(所能)으로 표현된다. 『供佛利生儀』⁷⁰⁾는 ‘능소(能所)’의 표현이고, 『頻毘娑羅王詣佛供養經』이나 『阿閼如來念誦供養法』에 명명은 ‘소능(所能)’의 형식이며, 『供養儀式』은 소공을 드러내지 않고 능공만을 표현하는 명명법이라고 할 수 있다. 공양을 받는 이를 먼저 표현하건 나중에 표현하건 그 의미가 분명하게 드러나면 문제가 없다. 하지만 앞의 예시에서 볼 수 있듯이 ‘조왕불공’, ‘신중불공’, ‘관음불공’은 그렇지 못하다. 불공이라는 표현은 빠른 시기의 조어라고 할 수 있다. 신에게 공양하던 것이 불(佛)계로 전화되어 쓰였다고 보이므로 ‘불공’이라는 개념은 불(佛) 재세(在世) 때부터 쓰였을 것이다. 삼보개념은 일찍부터 있었지만 삼단(三壇), 삼위(三位) 개념은 신중과 하위의 아귀 개념이 등장한 이후의 일이

69) 줄고(2012), 104쪽.

70) 道殿集, 『顯密圓通成佛心要集』, T 46, 1004b쪽.

라고 볼 수 있다.⁷¹⁾

『진언권공』(1496)의 ‘권공’뿐만 아니라, 『삼단시식문』(1496)에는 상·중·하의 각 위에 따라 ‘불공’, ‘제천공양’, ‘고혼수향’이라고 하여 명칭이 다르게 나타난다.⁷²⁾ 또 『삼화행도집』(1986)에서는 삼보통칭~신중칭을 ‘불공의(佛供儀)’라고 하고 있다.⁷³⁾ ‘불공’은 부처님께 공양하는 의미로 상단의 불격에는 적합하다고 볼 수 있지만 ‘상단불공’은 상단이 곧 불을 의미하므로 이중 서술이 된다. ‘불공’하거나 ‘상(불)단공양’이 어법상 어울린다.⁷⁴⁾

나. 勸供

공양을 권한다는 ‘권공’은 『진언권공』(1496)에서 알 수 있듯이 상단의 불격에 공양을 권해 올릴 때 사용되었다. 이후 ‘진언권공’이 변식의례로 축소되고 권공 또한 의미가 축소되면서 현교의식의 공양과 더불어 밀교의식의 진언권공으로 이해되었다. 『범음산보집』(1723)에는 ‘상단권공’, ‘중단권공’, ‘하단시식’으로 정형화돼 있다.⁷⁵⁾ 짧지 않은 기간 동안 한국불교에서는 ‘상단불공’, ‘중단권공’, ‘하단시식’으로 굳어져 마치 ‘권공’이라는 용어가 상단용이라기보다는 (신)중단용에 적합하다는 인식이 자리하게 되었다고 보인다.⁷⁶⁾ 여기에는 중단퇴공(退供)이 한 몫을 했다고 볼 수 있을 터인데, 상단에 올렸던 공양물을 중단으로 물려 공양하므로 퇴공이라고 하였다고 할 수 있다.

71) 줄고(2012), 105쪽.

72) 『삼단시식문』, 『한의총』 1, pp. 470~496.

73) 『삼화행도집』, p. 103.

74) 줄고(2012), 105쪽.

75) 智還 集, 『天地冥陽水陸齋儀梵音刪補集』, 『한불전』 11, 478쪽.

76) 줄고(2012), 105쪽.

퇴공(退供)을 ‘퇴공(推供)’⁷⁷⁾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공양물을 물리는 것이 아니라 공양물을 소공께서 민다는 인식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데 공양을 올린 능공자가 공양물을 물리는 것을, 소공께서 공양물을 민다고 인식하는 것은 이사(理事)를 혼동하는 데서 왔다고 할 수 있다. <진언권공> 공양법의 ‘진공진언’과 ‘퇴공진언(退供眞言)’에서 알 수 있듯이 공양물을 올리거나 내리는 주체는 공양자이다.⁷⁸⁾ 그러므로 더 이상의 논란은 무의미하다고 하겠다.

다. 進供

공양을 진상한다는 의미의 ‘진공’은 『운수단가사』(1627)에는 상위진공, 중위진공으로 나타나고 있고; 『중례문』(갑사, 1607)에는 상위진공, 중위진공, 하위시공(下位施斛)이라고 구별하고 있다. 또 『운수단의문』(1732)에도 상위진공, 중위진공이라고 하고 있다.⁷⁹⁾ 하지만 <진언권공>에서 정법계진언 후 공양물을 올리는 것을 진공(進供)진언이라 하고, 그것을 내리는 것을 퇴공(退供)진언이라고 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진공은 권공보다는 하위의 개념이라고 볼 수도 있다.⁸⁰⁾

라. 聖供과 獻供

의례와 경전의 한글화 차원에서 간행된 『대각교의식』(1927)

77) 『통일법요집』(1998), 153쪽;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1998[2003]), 142쪽.

78) 學祖 譯, 『진언권공』, 『한의총』 1, 437, 440쪽.

79) 『운수단가사』, 『한의총』 2, 16~17쪽; 『天地眞陽水陸齋儀纂要』, 갑사, 1607, 임종욱 역주, 동해시, 81, 88쪽; 『운수단의문』, 『한의총』 3, 191~192쪽.

80) 줄고(2012), 105쪽.

에는 성공(聖供) 절차라는 용어가 쓰이고; 『불광법회요전』(1983)에는 헌공(獻供) 작법이라는 표현이 등장한다.⁸¹⁾ ‘성공(聖供)’은 ‘불공’과 유사한 어법구조라고 할 수 있으므로 전체 공양 명칭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보인다. 또 헌공은 헌좌, 헌향, 헌화, 헌다, 헌과, 헌병, 헌수 등에 보이듯이 구체적인 공양물을 올릴 때 쓰이고 있으므로 진공(進供) 개념보다 더 작은 공양 행위에 쓰이고 있다. 상위나 중위에 공양을 올리는 행위를 표현하는 용어들의 쓰임으로 보았을 때 ‘공양을 권한다’는 ‘권공’이나 ‘공양을 올린다’는 ‘진공’은 넓은 의미라고 할 수 있고, ‘헌공’은 가장 구체적이고 세밀한 의미를 담고 있다⁸²⁾고 하겠다.

공양 의례의 명칭으로 널리 통용되는 ‘제불통칭’이나 ‘관음칭’ 등 ‘칭문’의 공양의식은 5신공양이나 6법공양 등 동일하고, 소공(所供) 즉 칭하는 대상만 달라지므로 그 대상을 칭하는 의문을 중심으로 편집하여 ‘칭문’, ‘각칭’이라는 명칭이 남아 있다고 보인다. 하지만 후대로 내려올수록 칭문의 칭사 다음에 공양 의식을 편제하면서 의문의 무게가 ‘칭’에서 본래 의례의 의미인 ‘공양’으로 옮겨갔지만 이름은 옛날 그대로 제불통칭, 관음칭 등으로 불리고 있다. 『석문의범』은 ‘각칭’이라고 소목을 부여하고 있고, 『통일법요집』(1988[1993])에서는 ‘헌공’이라는 소목을 부여하였지만 하위에서는 삼보통칭, 관음칭이라는 명칭을 택하고 있다. 이는 의식의 보수성과 완고성을 보여 주는 한 예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III. 結 語

81) 『대각교의식』, 1927, 『한의학』 4, 35쪽; 『불광법회요전』, 1983, 50쪽.

82) 줄고(2012), 105~106쪽.

지금까지 한국불교의 일상 의례의 명칭이라고 할 수 있는 예불·예참과 불공·권공 등의 용례와 인식 등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전반적으로 그 범주와 인식에 대한 일관성이 부족하다고 보인다.

이름은 범주를 분명해 줄 뿐만 아니라 의미를 명확히 드러낸다. 한국불교의 일상 의례들인 ‘예불’이나 ‘불공’은 유사한 의례에 폭넓게 혼용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와 같이 조석에 송주나 독경 등이 중심이 되는 ‘정진근행’을 ‘예불’이라는 하위의 명칭으로 통합하여 인식하게 되면 예불 전후의 주력이나 독경 등의 정진이 퇴색되고, 이것이 생략되어도 아무런 문제의식을 느낄 수 없게 한다. 또 일상 의례의 기능이 ‘예경’으로 한정되면 별도의 정진으로 독립되거나 하위 의례로 고정돼 정근 의례가 담고 있는 수행으로서의 역할이 현저하게 퇴색될 수 있다.

일상의 예불이나 불공에 대한 개념 정의에 대해 근대에 들어 오면서 새로운 인식을 시도하고 있다. 예불의 상위 개념으로 『석문의범』(1935)이나 『통일법요집』(1998)에서 ‘예경’이라는 상위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나,⁸³⁾ ‘삼보’에 예경할 때 ‘삼보예불’하지 않고 ‘삼보예경’이라고⁸⁴⁾ 조어하고 있는 것이 한 예인데 이는 타견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또 한글시대에 맞는 의식의 통일을 기치로 내걸고 펴낸 대한불교진흥원의 『통일법요집』에는 각 청의 상위 개념으로 ‘헌공’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것도⁸⁵⁾ 의미 있는 고뇌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예경이나 공양을 올릴 때 소례(所禮: 예 받는 이)와

83) 안진호(1935[2000]) 상편과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1998)의 목차.

84) 학담 편역, 『일상의식집』, 큰수례, 1999[2002], 100쪽.

85)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 통일법요집 편찬위원회(1988[1993]), 차례.

소공(所供: 공양 받는 이)에 따라 상단예경, 중단예경, 관음예경, 조왕예경이라고 하거나 상단헌공, 중단헌공, 관음헌공, 조왕헌공 또는 상단공양, 중단공양, 관음공양, 조왕공양 등으로 명명되어야 할 것이다. 또 순수한 예참의례라고 할 수 없는 헌공의례의 하위의식인 '예참'은 '예공' 등으로 칭명될 필요가 있으며, 나아가서는 예불을 중심으로 하는 일상의 정진의례를 '예불'이라고 그 이름을 한정할 것이 아니라 송주와 염불 등의 '정진'에 초점이 주어지는 명칭으로 환원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예불의 범주와 의미 등이 자연스럽게 드러날 수 있다고 하겠다.

참고문헌

대정신수대장경: T

신찬속장경: X

한국불교의례자료총서: 『한의총』

한국불교전서: 한불전

『法華三昧懺儀』(T 46)

『千手眼大悲心呪行法』(T 46)

『顯密圓通成佛心要集』(T 46)

省悟 編述, 『律苑事規』(X 60)

『往生淨土懺儀』(X 61)

中峯, 『三時繫念儀範』(X 74)

弘贊, 『禮佛儀式』(X 74)

『禪門日誦』, 上海佛學書局,

陳文富 編輯, 『佛門必備課誦本』, 瑞成書局, 中華民國 95年,

『佛光山宗務委員會課誦本』, 佛光山出版社, 民國 93.

『誠初心學人文』(『한불전』 4)

『大覺國師文集-代宣王諸宗教藏彫印疏』(『한불전』 4)

『大覺國師文集-高昌國幻釋尸羅嚙底書』(『한불전』 4)

明眼 集, 『現行法會禮懺儀式』(『한불전』 9)

巨璇 集, 『작법귀감』(『한불전』 10)

智禪 撰, 『五種梵音集』(『한불전』 12)

學祖 譯, 『진언권공』(『한의총』 1)

『三時繫念儀範』 국내 본(月渚 道安 書, 『三時繫念儀範文』(『한의총』

『靈山大會作法節次』(『한의총』 2)

大愚 集述, 『預修十王生七齋儀纂要』(『한의총』 2)

休靜 撰, 『雲水壇誦詞』(『한의총』 2)

『雲水壇誦詞』(『한의총』 2)

『雲水壇儀文』(『한의총』 3)

秋淡井幸, 『日用作法』, 해인사 도솔암, 1869, 『한의총』 3.

智還 編, 『天地冥陽水陸齋儀梵音刪補集』(『한의총』 3)

『天地冥陽水陸齋儀纂要』, 감사, 1607, 임종욱 역주, 동해시, 2007.

권재일 외, 『언어학과 인문학』,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9[2001].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 『통일법요집』, 조계종출판사, 1998[2003].

백상규, 『대각교의식』, 1927(『한의총』 4).

심상현, 『불교의식각론Ⅲ』, 한국불교출판부, 2001.

심상현, 『불교의식각론』 V, 한국불교출판부, 2001.

안진호, 『석문의범』상편, 前卍商會, 1935[2000].

안진호 편, 한정섭 주해, 『신편증주 석문의범』, 법륜사, 1982,

蓮邦 崔就虛 震湖 安錫淵 共編, 『佛子必覽』, 蓮邦舍, 昭和 六年,

월운, 『삼화행도집』, 보련각, 1986.

月雲, 『日用儀式隨聞記』, 중앙승가대학출판국, 1991.

李奉洙, 『常用佛教儀範』, 寶蓮閣, 1977.

中國佛教協會編, 課誦, 『中國佛教』第二輯, 知誌出版社,
1982[1989].

이성운, 『천수경, 의궤로 읽다』, 정우서적, 2011.

이화옥, 『불교의식요집』, 대구 삼영불교출판사, 1995.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 통일법요집 편찬위원회, 『통일법요집』,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 출판부, 1988[1993].

正覺, 『예불이란 무엇인가』, 운주사, 1993[2004],

- 학담 편역, 『일상의식집』, 큰수레, 1999[2002]
- 김종명, 「현대 한국의 승려 예불: 구조와 의미」, 『불교학연구』 14, 불교학연구회, 2006,
- 김종명, 「한국 일상예불의 역사적 변천」(『불교학연구』 18, 불교학연구회, 2007,
- 宋賢珠, 『現代 韓國佛教 禮佛의 性格에 관한 研究』,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99.
- 신규탁, 「조계종 현행 예불문 고찰」, 『동아시아불교의례문화연구소 출범 및 기념세미나』, 2011; 『淨土學研究』 16.
- 심상현, 『영산재 성립과 작법의례에 관한 연구』, 위덕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2011,
- 이성운, 『韓國佛教 儀禮體系 研究-施食·供養 儀禮를 중심으로-』, 東國大學校 博士學位論文, 2012,
- 정각, 「참회, 예참의 의미와 행법」, 『불광』 285호, 불광회, 1998,
- 정영식, 「아시아 근대불교의례와 『선문일송(禪門日誦)』의 유통」, 『韓國思想과 文化』 52, 한국사상문화학회, 2010.
- 한보광, 「淨土 禮佛文에 관한 연구」, 『정토학연구』 6, 한국정토학회, 2003.

<abstract>

A Study on the Name of Daily Ceremony of Korean Buddhism

– Focusing on example and recognition –

Lee Seong-Woon
Dongguk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grasp the example of name appointing the daily ceremony of Korean Buddhism and understand the problem of recognition projected there. It is because the consideration on name can define the category and meaning. Daily ceremony can be said as the one to devote oneself to training day by day. As the names of daily ceremonies of Korean Buddhism, there are Jomo-Songju(朝暮誦呪), Yebul(worship of the Buddha), Yekyung(worship), Bulgong(offering for Buddha) and Gwongong. The study considered the change of and the recognition over the names used for the daily ceremony of Korean Buddhism. Before the 20th century, it seems that Ilyong-jakbup, Jomo Songju and Yekyung(worship) were used comprehensively. Recently, Yebul(worship of the Buddha) has been used for Jomo-Songju and Yebul(worship of the Buddha) and Bulgong(offering for Buddha) has been used for offering ceremonies of all altars including Buddhist altar without the classification. Therefore, the study researched various causes for the recognition and asserted that they should be named as ○○(target)Yekyung and ○○(target)Hungong(獻供).

***Key words**

Yebul, Yekyung, Bulgong, Hungong, Ilyong-jakbup, Seokmun-eubeom, Tongil-Bubyojip